35

경식도 심초음파의 개심수술 전후 이용도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, 성바오로병원

조규도 · 윤정섭 · 김치경 · 이성호 · 연성모 · 곽문섭

경식도 심초음파는 수술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술 전후 좌심실 기능 평가, 공기 색전의 감시 등을 용이하게 하고 선천성 심장질환의 수술 성공도 측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으로 최근 개심수술의 필수 요건으로 각광받고 있다.

1996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가톨릭의대부속 성바오로병원에서 시행한 개심수술중 경식도 심초음파를 적용한 61명의 환자(남녀비 1:1.03, 평균연령 53.2세)에서 후향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선천성 심장질환 예, 심장판막질환 예, 관상동맥질환 23예 이었다.
2. 심실중격결손증 1례와 대동맥판막치환 1례에서 심정지 하 1차 수술 후 경식도 심초음파 소견에 의하여 다시 심정지를 유도하여 재수술한 바 있다.
3.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받은 23명의 환자에서 transgastric short axis의 유두근 수준에서 좌심실을 5개 분절로 나누어 총 68분절을 수축기 심근두께백분율(percentage of systolic wall thickening, PSWT)을 도부타민 투여 전, 투여 후, 수술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. 관상동맥 우회로술 후 반응군은 56.8%(14.7±5.9% → 34.5±9.6%, $p<0.01$) 이었고 비반응군은 43.2%(13.8±6.9% → 15.3±8.1%, p=NS) 이었다.